

## 유교교양교육과 초중고 전통문화교육 연계 방안\*

- 유교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

김광섭\*\*

###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유교 연수교육 현황 분석
  - 1.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현황
  - 2.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모델 개발 현황
- III. 예절·인성·문화 교육의 내실화 방안
  - 1. 수요자 중심의 전통 예절·인성·문화 교육
  - 2. 어린이 예절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수 방법
- IV. 나오는 말

### 【 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예절교육은 유교의 전통예절과 서구의 시민윤리를 합하여 가르치고 있다. 시민윤리가 합리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개인주의적이라면, 전통예절은 공경과 존중에 기초한 공동체주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정신은 오늘날의 물질적 가치의 중시, 생명경시풍조, 집단이기주의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인성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인성도 갖춘 창의적 인재'임을 고려해 보면, 현대사회에서 창의성만 갖춘 인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 S1A5B5A07036759)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의 응답을 보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높은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법을 찾아보았다.

7차 교육과정은 전통 윤리와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확충하였고, 2012년도 개정안에서는 ‘인성 핵심 역량 강화’ 부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더구나 2012년도 1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자율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가활동과 전통문화체험을 연계할 물리적 시간이 늘어났다. 따라서 유교교육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하면, 지역 사회와의 협력 뿐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한 예절 교육 및 인성 함양, 전통문화 체험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유교교양교육, 유교문화체험, 전통문화, 인성교육, 교과과정, 예절교육, 창의적 인재, 여가활동

## I. 들어가는 말

유교교양교육은 교과부의 정규 교과과정과 별개로 ‘인성함양’과 ‘전통 생활예절’ 그리고 ‘전통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유교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인간상으로 ‘선비’를 제시하고, ‘선비정신’을 덕목별로 분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교재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sup>1)</sup>

1) 2011년 8월, 성균관과 퇴계학연구원에서는 선비 정신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총6권의 교재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교재를 다시 디지털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유교교육기관에 의해 바람직한 목표로 설정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올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sup>2)</sup> 그러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흥미로움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 학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문화체험에 참여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기 쉽고, 실제 프로그램도 단기성(대부분 1일이나 2일) 체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교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고, 동시에 초·중고 교과과정의 전통문화 교육내용 또한 통합적,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2년도 인성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과과정 개선 내용과 기존의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법을 찾아본다. 그 목적은 1회성 체험이 아닌 교육 내용의 점층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전통 윤리와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확충하였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또한 교과부에서도 정규 교과 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sup>3)</sup> 부분을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2년도 개정안에서는 ‘인성 핵심 역량 강화’ 부분을 강조하였기 때

2) 이 목적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및 지속적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개선’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방향과 일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7. 3~4쪽. 이미숙 외,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11쪽.

3)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1쪽.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활동, 그리고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에 유교 문화의 역할이 커졌다. 더구나 2012년도 1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여가활동과 전통문화체험을 연계할 물리적 시간이 늘어났다. 따라서 유교교육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하면, 지역 사회와의 협력 뿐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한 예절 교육 및 인성 함양, 전통문화 체험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II. 유교 연수교육 현황 분석

### 1.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현황

유교교육기관의 목표는 유교 문화에 기초하여 올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유교 문화는 과거의 문화이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부정적 요소는 버리고 긍정적 요소를 확대하며, 변화된 현실에 맞춰 숨어있던 장점들을 재발견하여 현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각 유교교육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점을 찾아본다.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성·예절교육과 문화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간은 대부분 1일에서 2일 길게는 5일 동안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설 프로그램은 짧은 교육 기간에 맞춰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이 체험 및 시연, 간단한 만들기 중심으로 프로그램간의 관련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서원·향교의 활용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표 1〉 전국 서원·향교의 활용 프로그램 소개

| 구분 | 프로그램명  |
|----|--|
| 공통 | ▶ 전통예절, 인성교육, 한문교육, 전통문화체험, 지역탐방<br>▶ 서예, 다례, 국궁, 관혼상제 재현, 강좌, 백일장, 과거재현, 국악공연<br>▶ 연수(공무원, 직장인, 학교 등) |
| 특화 | ▶ 연극(상황극, 공연 등)<br>▶ 지역별 축제 연계 프로그램, 세미나, 기체조, 한문능력시험, 택견 등  |

〈표 2〉 전국 서원·향교의 활용 프로그램 내용

| 구분       | 내용  |
|----------|---|
| 한문·인성·예절 | ▶ 한문수업 : 사자소학, 소학, 명심보감, 논어 등<br>▶ 예절수업 : 전통인사법, 언어·식사 예절, 공중도덕 등<br>▶ 인성수업 : 효, 선비정신, 타인배려하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
| 문화체험     | ▶ 전통체험 : 다도체험, 전통무예, 전통음악, 도자기 만들기 등<br>▶ 전통놀이 : 굴렁쇠, 윷놀이, 그네타기,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br>▶ 명소탐방 : 서원과 향교, 종가방문 등 |

4) 지두환·최영갑 외,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38~41쪽.

〈표 3〉 초·중학생 1박2일 과정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 일차          | 시간                  | 요항  | 내용   |
|-------------|---------------------|---|--|
| 1<br>일<br>차 | 1. ~11:00           | · 등록  | · 홍보관 입실<br>· 교재 배부  |
|             | 2. 11:00~11:40(40)  | · 도산서원에 대한 공부   | · 선비정신의 참모습 알기 (영상자료 보기)   |
|             | 3. 11:50~12:20(30)  | · 선현뵙기  | · 상덕사 알묘   |
|             | 4. 12:30~13:30(60)  | · 점심 식사   | · 바른자세로 식사<br>· 음식 조절해서 먹기                                       |
|             | 5. 13:30~16:30(180) | · 선비문화와 유적지 살피기<br>1) 독립운동가의 삶<br>2) 독립운동가의 자취 돌아보기<br>3) 퇴계선생의 생가와 묘소 돌아보기 | · 퇴계선생의 태어남<br>· 이육사 문학관 (영상자료)<br>· 하계마을 독립운동 기적비<br>· 퇴계선생의 묘소 |
|             | 6. 16:30~17:30(60)  | · 퇴계선생의 생각과 삶에 대한 공부  | · 퇴계선생의 생각과 모습 공부<br>· 퇴계종택방문 종손 말씀 듣기                           |
|             | 7. 17:40~18:40(60)  | · 저녁식사  | · 바른자세로 식사<br>· 음식 조절해서 먹기                                       |
|             | 8. 18:50~19:50(60)  | · <교재공부><br><b>선비생활 모습의 이모저모</b>  | · 현장 체험학습 공부 요령<br>· 선비정신과 오늘의 선비<br>· 생활예절                      |
|             | 9. 20:00~21:00(60)  | · 영상자료  | · <영상자료 보기>  |
|             | 10. 21:00~21:30(30) | · 몸씻기   | · 양치질<br>· 몸씻기   |
|             | 11. 21:30~07:00     | · 잠자기   | · 잠자기  |

|             |                    |                      |                               |
|-------------|--------------------|----------------------|-------------------------------|
| 2<br>일<br>차 | 1. 07:00~07:50(50) | · 아침 생활 정리<br>(채소응대) | · 세면하기<br>· 이부자리 정리<br>· 방청소  |
|             | 2. 08:00~08:30(30) | · 건강관리               | · 활인심방                        |
|             | 3. 08:30~09:30(60) | · 아침 식사              | · 바른자세로 식사<br>· 음식 조절해서 먹기    |
|             | 4. 09:30~10:30(60) | · 인사예절공부             | · 바른 인사 예절<br>· 인사 습관화        |
|             | 5. 10:40~11:40(60) | · 선비문화자취 살피기         | · 유교문화 박물관 탐방                 |
|             | 6. 11:50~12:50(60) | · 전통 놀이              | · 투호놀이(단체)                    |
|             | 7. 12:50~13:50(60) | · 점심 식사              | · 바른자세로 식사<br>· 음식 조절해서 먹기    |
|             | 8. 13:50~14:20(30) | · 생활반성               | · 소감발표<br>· 소감쓰기<br>· 공부내용다지기 |
|             | 9. 14:20~14:30(10) | · 수료식                |                               |

〈표 1〉 〈표 2〉의 내용과 같이, 주요 교육 내용은 한문, 예절, 인성 수업과, 문화 체험이다. 이것을 1박2일에 맞춰 시간별로 배정한 예가 〈표 3〉이다. 한문 교육은 조선시대 아동의 생활습관 형성을 내용으로 한 『소학』과 경전의 명언·명구들을 모아 놓은 『명심보감』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sup>5)</sup> 그 내용은 예절과 인성 교육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한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방법이 단순한 암기 또는 내용의 일방적 전달에 가깝다. 『소학』은 주자가 『예기』와 『논어』를 비롯하여 22종의 문헌에서 아동 교육에 필요한 것을 뽑아 놓은 아동교육서이다. 그런데 『소학』의 내용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용이나 사용된 한

5) 이 외에 아동 학습서로 이이의 「격몽요결」, 정경세의 「養正篇」, 안정복의 「下學指南」, 이덕무의 「士小節」, 박재형의 「海東小學」, 이홍립의 「言行經」 등이 있다.

자의 난이도가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절 교육은 전통인사법과 언어,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1박 2일의 체험 활동 기간 중, 식사 시간이나 강의 시간 중에 실제로 예절에 맞추어 행동하게 하는 방법이다.

도산서원유교문화수련원 이외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성균관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①옛 유적지 탐방, ②옛 풍습이나 예절 재현해보기, ③강사의 개인적 강의, ④상황에 맞춰 정해지는 주제로 토론, ⑤옛날처럼 먹고 자는 체험 등을 실시하는 정도이다. 이처럼 현재 유교문화 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단편적 주제에 대한 교양을 알아보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이에 체계적인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년 8월 성균관과 퇴계학연구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기업인, 공직자, 교사를 대상으로 『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를 만들었다. 유교 문화와 선비 정신을 각 대상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성균관 유교문화체험 홈페이지 화면

어린이용은 ‘선비, 바람직한 인간’ ⇒ ‘선비의 삶’ ⇒ ‘선비, 자랑스런 초상’ ⇒ ‘선비 되기’ ⇒ ‘현대의 선비’로 되었다. 이 교재는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 선비의 학문과 독서, 여가와 풍류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한 모범적 인물로 퇴계와 율곡, 우암과 면암, 담헌과 다산 등을 들었다. 이어 자기개발의 방법, 가정에서 효도하기, 예의바른 사람되기, 친구 사귀기 등 직접적 활동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다. 청소년용은 ‘유교와 선비정신’ ⇒ ‘선비의 가정생활과 교유관계’ ⇒ ‘선비의 사회생활과 리더십’ ⇒ ‘선비의 학문세계’ ⇒ ‘현대의 선비정신’으로 구성하여, 전통사회에서 중시되었던 선비관 가운데 현대사회에 필요한 효, 예, 공동체 의식,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부모용은 ‘유교와 가정’ ⇒ ‘가정교육과 부모의 역할’ ⇒ ‘선비의 학문과 자녀 지도법’ ⇒ ‘가정교육의 사회적 실천’ ⇒ ‘미래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한 부모의 상을 제시하고 자녀의 인성교육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프로그램 전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목표는 인성·예절교육에 두었지만, 운용은 문화체험위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요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내용을 단기간 내에 소화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프로그램의 연관성과 주요 목표가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유교문화체험 교재』의 발행으로 공통교재의 기반은 갖추어졌으나 여전히 활용 방법의 문제는 남아있다. 교재의 내용은 6개월 정도(매주 1시간 기준)의 교육 분량이나 실제의 교육시간은 1일 혹은 2일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소화하자면 1~2시간 정도의 여유 밖에 남지 않는다.<sup>6)</sup> 그리고

6)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 참여를 통한 습득의 질을 높이는 단계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였다.

공통교재의 역할은 가이드북의 성격이 강한데, 현장에서 교수자가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도 고려할 문제이다.

## 2.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모델 개발 현황

유교교육에 있어 인성과 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은 모두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인성과 예절의 덕목을 유교에서 찾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실천했던 윤리적 삶의 기본정신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문화체험 속에 인성과 예절에 대한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과, 각각의 주요 내용을 달리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다.

2009년 국민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후자의 형태에 해당한다. 유형별 개발 모델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개별 프로그램 명칭과 내용

| 분류       | 프로그램 명칭          | 내용 구성  |
|----------|------------------|--|
| 전통문화 계승형 | 예절교육             | · 퇴계 율곡과 같은 선비들의 삶에서 지혜 배움<br>· 덕망의 리더십을 통한 현대 선비정신 함양 |
|          | 한문교육             | ·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프로그램<br>· 선현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      |
| 인성 리더십형  | 성공하는 선비들의 7가지 법칙 | · 지성과 인성의 리더십을 배우는 프로그램<br>· 옛 교육내용과 현대적 교육방법 접목       |
| 교육형      | 선비에게 길을 묻다       | · 예절교육 내용과 상동  |
|          | 우리 철학 만남         | · 한문교육 내용과 상동  |
|          | 명사와의 대화          | · 명사 초청하여 프로그램 구성<br>· 정기적 프로그램 정착                     |

|           |                 |  |
|-----------|-----------------|--|
|           | 태교와 전통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교육의 장점을 프로그램으로 구성</li> <li>· 신부 수업 등 어머니 교육 중심</li> </ul>      |
| 마음<br>치유형 | 서원나들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책과 명상</li> <li>· 미래 행장 쓰기</li> </ul>                             |
|           | 나를 찾아 떠나는<br>여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인심방, 정좌법 등 심신수양</li> <li>· 서원 주변 경관 산책 명상</li> </ul>             |
|           | 철학자의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현들이 걸었던 길 따라 걷기</li> <li>· 일일 철학자 되기 프로그램</li> </ul>             |
| 관광연계형     | 서원체험 투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서원 순례</li> <li>· 서원과 지역문화 유적지 연계 관광</li> </ul>                |
|           | 선비탐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서원 순례</li> </ul>  |
|           | 강따라 문화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유적지와 연계하여 연계 관광</li> </ul>                                   |
| 문화체험형     | 선비일상 따라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비의 일과표를 구성하여 따라하기</li> <li>· 학문과 휴식, 강학과 토론으로 프로그램 구성</li> </ul> |
|           | 일일 꼬마선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복입고 선비놀이 하기</li> </ul>   |
|           | 선비향연 음악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별 퓨전 음악회 개최</li> <li>· 지역 축제와 함께 서원에서 진행</li> </ul>             |
|           | 선비야 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생 대상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li> <li>· 체험이 구비된 서원에서 1일 체험</li> </ul>    |

위 프로그램들은 유교교육에만 치중하는 교육내용과 주변의 전통문화 유적지와의 연계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방향성만 제시된 한계가 있다. 이 가운데 <교육형>의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교육형 일정표

| 일정          | 장소     | 내용                     | 비고                    |
|-------------|--------|------------------------|-----------------------|
| 10:00       | 서울     | · 집결                   |                       |
| 10:00~12:00 |        | · 월동서원을 향해             | · 유인물 배포 및 설명         |
| 12:00~13:00 |        | · 점심식사                 | · 맛 집을 찾아서            |
| 13:00~14:00 | 월동서원   | · 월동서원 도착              | · 서원관계자와 연락,<br>접견    |
| 14:00~16:00 |        | · 서원 관람 및 설명           | · 철학자의 길 걷기 등         |
| 16:00~17:00 | 필암서원   | · 필암서원으로 이동            |                       |
| 17:00~18:00 |        | · 필암서원 설명              | · 하서 김인후 선생의<br>삶과 학문 |
| 18:00~19:00 |        | · 저녁식사                 | · 사전 예약 준비            |
| 19:00~20:00 |        | · 방 배정 및 세면            |                       |
| 20:00~21:00 | 필암서원   | · 원로와의 대화              | · 서원장 또는 지역원로<br>참여   |
| 21:00~      |        | · 자유 시간 및 취침           | · 서원의 밤하늘 별자리<br>보기   |
| 07:00~08:00 |        | · 기상 및 세면              |                       |
| 08:00~09:00 | 2일차    | · 아침식사                 |                       |
| 09:00~11:00 | 홍길동 유적 | · 홍길동 유적 관광            |                       |
| 11:00~12:00 | 남고서원   | · 남고서원 도착              | · 관계자 사전 연락           |
| 13:00~14:00 |        | · 점심식사                 |                       |
| 14:00~14:30 | 무성서원   | · 무성서원으로 이동            | · 관계자 사전 연락           |
| 14:30~15:30 |        | · 체험일정-탁본, 붓글씨         | · 체험 담당자 섭외           |
| 15:30~16:30 | 피향정    | · 피향정 관람, 전통주<br>제조 관람 | · 전통주 사전 연락           |
| 16:30~18:00 |        | · 집결지로 이동 및 해산         | · 마무리                 |

〈표 5〉는 지역문화관광연계형 프로그램으로 〈표 4〉의 유형별 프로그램 가운데 관광연계형 프로그램에 ‘철학자의 길 걷기’와 ‘예절 교육’을 추가하였다. 예절교육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복장을 한 배우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sup>7)</sup> 문화유산 해설의 현장감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충청문화권, 지리산권, 강원문화권, 호남문화권, 경기문화권, 경북문화권으로 나누어 지역의 대표 유학자와 서원·향교를 중심으로 관광체험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에서는 퇴계를, 자원서원에서는 율곡을, 덕천서원에서는 남명을 재현 배우가 등장하여 그의 삶과 가치관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별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 상품화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성, 예절 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보면, 1회성 체험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연령별, 대상별 교육 내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론적 학습보다는 체험을 통한 인성·예절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유교교육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유교문화 역사공간으로 전국에 서원 581개, 향교 234개, 사우 233 곳이 있다. 기반 시설 미비와 재정·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정, 학교, 유교교육기관을 하나로 묶는 지역별 교육벨트 조성이 선행되어야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7) 미국 필라델피아의 ‘Breakfast with Ben’ 프로그램에서는 벤자민프랭클린의 복장과 행동을 재현한 배우와 함께 그의 생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그의 삶과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지두환·최영갑 외,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111쪽.

### Ⅲ. 예절·인성·문화 교육의 내실화 방안

#### 1. 수요자 중심의 전통 예절·인성·문화 교육

아동/청소년 인성·예절·문화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육 기관이다. 이 세 주체가 각각 바라는 바를 파악하여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과과정에 나오는 전통 예절과 문화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실제 체험을 필요로 하고, 학부모는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인사, 언어, 식사 예절 등을 배워오기를 바란다. 따라서 예절과 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유교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교교육기관은 의무적인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 언어, 식사예절의 습득과 이의 반복적 실천을 통한 인성의 자발적 함양이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나눔과 배려로 이어져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예절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지식 전달 중심의 교과 교육 내에서 인성·예절 교육은 형식적이기 쉽다.

인성·예절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학습량의 경감'과 '교과 활동과 체험 활동을 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sup>8)</sup> 그러나 실제 교육에 있어 지식 교

8) 이명준 외, 「교과교육과 창의적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5쪽, 10쪽, 30쪽, 159쪽 표 참조.

육과 인성·예절 교육은 제대로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 교육의 내용에 효과적으로 인성 교육의 내용을 포함시켜 체화시킬 교육 방법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의 내용’, ‘부모님들의 바람’, ‘유교교육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교과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인성 교육의 주요 덕목과 도덕 과목의 인성 교육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인성교육의 내용에 따른 덕목 비교

| 인성의 주요덕목 및 가치                      | 도덕과의 주요덕목 및 가치<br>(2011개정 도덕과 교육 개정)   |
|------------------------------------|--|
| 신뢰, 존중, 책임, 공정, 배려, 시민의식, 심미성, 창의성 |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효도, 예절, 협동, 준법공익, 애국심, 통일 의지, 인류애, 자연애, 생명존중, 평화 |

위 표의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대부분 ‘기본 생활 및 수업 예절 지도’와 ‘교훈적 이야기’를 통해 지도하고 있다.

인성·예절 교육은 습관화, 이성적 판단, 심리적 능력을 동시에 개발하는 종합적 인간교육을 목표로 한다. 아동 시기에는 습관화가 중심이 되고 청소년기에는 이성적 판단과 심리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유교교육 기관이 가지는 장점은 전통적 문화 공간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쉽게 전통

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통 문화 중, 교과 교육을 확대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2012년도 인성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표 8〉

| 구분   | 교육목표 | 개정 내용                          |
|------|------|--------------------------------|
| 초등학교 |      | 바른 인성의 함양/배려하는 마음              |
| 중학교  |      | 바른 인성/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배려하는 마음 |
| 고등학교 |      |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

교육목표 전문에 ‘바른 인성’을 추가하고 하위목표로 ‘배려하는 마음’, ‘공감·소통 능력’,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어, 도덕, 사회 교과와 ‘인성 요소’ 강화를 위해 교과와 핵심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정 하였다. 예를 들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근간을 유지하되, ‘인성교육 및 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교육 내용 요소를 강화하였다. 먼저 국어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성 핵심역량을 선정하였는데 다음 표와 같다.

9) 이미숙 외,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11~133쪽.

〈표 9〉

| 인성 핵심역량<br>구분 | 인성 핵심역량               |
|---------------|-----------------------|
| 개인적 차원        | 자기 존중 / 자기 통제 / 자기 성찰 |
| 대인관계적 차원      | 타인 존중 / 공감 / 소통       |
| 공동체 차원        | 책임 / 참여 의식            |

국어교과에서 제시된 ‘인성 핵심역량’은 대상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개인, 타인인, 공동체라는 대상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도덕·사회교과에서도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등을 교과 지식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길러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교육의 목표는 유교교육기관에서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일치한다. 그런데 교육 공간의 차이로 인해 학생에게 전달되는 공감의 정도가 다르다고 본다. 학교 교육에서는 듣기·말하기·쓰기·읽기의 기본 학습활동에서 소집단 협동 학습법, 대화 중심 학습법, 토의·토론식 학습법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알아가도록 하였다. 반면, 유교교육기관은 전통문화가 유지되는 곳으로 학습 보다는 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차별화된 교육 공간, 전문적 교육자, 능동적 참여자가 상호 관계를 통해 목표 주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의 장이 형성되었을 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길러질 것이다.

문화체험 방법은 학기 중 교과 내용에 따라 관련 유교교육기관을 찾는 것과, 주말을 이용하는 것, 방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주5일제 수업의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확대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유교교육기관이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이 교과 과정에서 배운 지식들을 전통문화 공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실행해 봄으로써 상호 공감과 소통의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이것은 가정으로 이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으로 내면화가 가능하다.

‘인성 핵심 역량’은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기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제시된 ‘타인존중, 공감,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존중, 자기 통제, 자기 성찰’과 ‘책임, 참여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목표로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바른 인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주체의 확립에서 출발하여 타인과의 효율적 관계를 맺는 서구적 방법보다 ‘배려와 나눔, 소통’의 과정을 통해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 2. 어린이 예절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수 방법

문화 교육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되어 실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은 문화 경험이 ‘대상을 아는 것(기술)’, ‘방법을 아는 것(참여)’, ‘이유를 아는 것(해석)’, ‘자신을 아는 것(반응)’ 등 네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구성된다는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어린이 예절 교육은 보통 초등1~2과정, 초등3~6과정 두 단계로 나눈다.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능력은 구체적 조작기 수준에 있으므로 추상

적·관념적인 학습보다는 바람직한 예절을 보고 따라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예절과 사회예절을 항목별로 직접 실행해 보는 것이다. 초등3~6과정은 예절의 의의와 필요성, 그 효과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정한 옷차림하기’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를 이해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직접 실연하고 반복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절교육은 대부분 예절의 세부절차를 순서대로 한 번 따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은 예를 행하는 상황적 맥락이나 그 의미, 효과에 대해 대부분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자발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절을 지킴으로서 타인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질적으로 차이가 남을 스스로 알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가치언어, 즉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예쁘다’ ‘밋다’ 등의 언어를 가르칠 때, 구체적 예를 소개하고 직접 그 예를 실행하게 하여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상황극(역활극)은 간접체험을 통해 정서상 공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스토리 속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교수자는 상황극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극을 하는 이유, 과정, 목표를 학생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진행 중에는 안내자, 조정자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어린이 예절교육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교육기관의 연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올바른 태도와 언어 사용은 무엇보다 좋은 예절교육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유교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어린이에게 예절 체험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학부모와 어린이가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학부모와 함께 참여했을 경우,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을 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고, 가정에 돌아가 배운 내용을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다.

□ 교수 방법 및 과정

- ▶ 교재: 『동자례』 혹은 간추린 『동자례』
- ▶ 대상: 초등3~6과정
- ▶ 기간: 1일
- ▶ 목표:
  - 전통예절의 필요성과 중요성 알기(수준별 이해)
  - 상황에 따라 실천방법 알고 행하기
- ▶ 방법
  - 상황극(역할극)을 통해 예절의 방법과 의미를 알기
  - 장면의 문제점 설명해 주기, 모범적 행동을 따라 배우기, 직접해보며 익히기
  -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여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며 이해하기
  - 학교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그 실천여부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기
- ▶ 상황극 진행시 유의 사항
  - 학생들에게 상황극의 규칙과 주제를 미리 알려준다.
  - 스토리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정해 준다.
  - 행동과 언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 내용체계
  - \* 개인, 가정, 사회의 순으로 확대
  - 1차시: 개인 예절
    - ┆ 학습내용: 기본예절 습득

세수하고 머리 빗는 범절, 옷 입는 범절, 양손을 마주 잡는 범절, 상체를 구부리는 인사범절, 절하는 범절, 꿇어앉는 범절, 서 있는 범절, 앉는 범절, 걷는 범절, 말하는 범절, 보고 듣는 범절, 마시고 먹는 범절

☐지도방법: 전통복장을 갖춘 연륜 있는 선생님, 젊은 교수자  
각 예절의 모습과 행동 절차를 익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예절 교육과 동일

■ 2,3차시: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예절

☐ 학습내용: 상황에 따른 적용

집안에서의 예절

청소하는 범절, 부름에 응하고 물음에 답하는 범절, 나아가고 물러나는 범절, 부모를 따뜻하고 서늘하게 모시는 범절, 잡자리를 챙기고 문안인사를 드리는 범절, 손님을 대하는 범절, 마중과 배웅 범절,

외출할 때의 예절

외출할 때의 범절, 음식을 드리는 범절, 어른을 모시는 범절, 어른을 모시고 외출하는 범절, 길에서 뒷사람을 만났을 때의 범절, 시중드는 범절

☐ 상황극

상황 1: 장소 : 집안

등장인물: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혹은 누나 형

장면1: 식사 시간

바르게 앉기, 어른 먼저 수저 들기, 대화 시 높임말 쓰기

장면2: 아버지 출퇴근, 나 등하교

바른 말과 행동으로 인사

장면3: 친한 손님이 오셨을 때

마중, 배웅 할 때 바르게 인사하기

상황 2: 장소 : 동네 슈퍼마켓

등장인물: 어머니, 나, 동네어른

장면1: 친한 어른을 만났을 때

예의바르게 인사하기

상황 3:……

■ 4차시: 앞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반복한다.

위 안은 대략적인 안으로, 『동자례』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아 보완을 거쳐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스토리 설정과 실행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짧은 장면 위주로 분절하여 각 상황을 제시하여 수행하게 한다. 이 경우,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해보기⇒교수자의 교정⇒ 예절에 맞게 다시 해보기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예절행동의 습득이 아니라, 예절을 갖추어 상호 관계를 가졌을 때, 정감으로 느껴지는 상호존중과 공경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런 정감을 바탕으로 예절바른 행동과 언어를 사용한다면, 예절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올바른 인성도야와 상호존중 관계 맺기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2012년도 인성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과과정 개선 내용과 기존의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 목적은 1회성 체험이 아닌 교육 내용의 점층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7차 교육과정은 전통 윤리와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을 확충하였고 2012년 개정안은 바른 인성함양, 배려하는 마음,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교과와 핵심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사례와 실천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전통예절에 강점이 있는 유교교육기관은 학교와 가정·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의 교과 내용을 통한 간접 경험을 유교교육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에서의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1회성이 아닌 단계별 과정을 통해 교육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기존의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개발된 체험 프로그램들은 지역관광형 모델에 기본을 두었다. 연령과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을 갖췄다. 다만, 지역별 특성 고려와 역사 인물 재현 등 특화된 프로그램과 흥미 요소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령별, 대상별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교과교육내용과 연계하여 유교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단계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과 내용 중 유교문화를 항목화하고 유교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주5일제 수업으로 확대된 여가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제한적이지만, 단계별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 3~4쪽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1쪽.
- 김성일 저, 김미영 옮김, 『동자래·거향잡의: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예절지침서』, 민속원, 2011.
- 민현식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2011 교과부 정책 연구개발 보고서, 2011.
- 이명준 외, 「교과교육과 창의적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5쪽.
- 이미숙 외,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11~133쪽.
- 지두환·최영갑 외,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111쪽.

Abstract

## A Study on the Connection Method between Confucianism General Education and School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Kim, Kwang-Seub

Korea's traditional Confucian etiquette has been teaching ethics combined citizen moral in the West. Civil ethics based on rationality and autonomy.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manners are based on honor and respect. This spirit of mutual respec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solve such problems, emphasis on material values, life downplay climate, collective selfishness.

In recent years, the character education will raise 'creative talent with toughness'. When parents and teachers think about the desired character education, they focus on the role of home and community. But the role does not have high expectations. So this paper analyzes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experience program for the current status of the major. And based on this, I looked for ways to consistently induced watched attention and interest of students and parents.

Information on traditional ethics and traditional culture was expanding in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And Toughness enhance core competencies part emphasized. So, they have a lot of interest in Confucianism. Also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physical experience of traditional culture time increased, because 'five-day week' classes were conducted autonomously. Therefor, If the substantial Confucian education curriculum develop in conjunction with the school, it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Bsid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2S1A5B5A07036759)

manners and character cultivation,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School Education.

**Key Word**

Traditonal culture,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Confucian cultural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Manners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13.7.1. 심사완료일 : 2013.8.5. 게재결정일 : 2013.8.13.